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1남, 1·2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8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거창과 산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두 달의 안식월(1차)을 마치고 8월 9일에 귀국하십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재배한 친환경 완숙 토마토 주문 받습니다. 10kg 40,000원 5kg 22,000원입니다.

다음 주 동호회 시간에 레포츠동호회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나친 냉방은 삼가십시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28도입니다.

창 32:22~31 / 시 17:1~7, 15 롬 9:1~5 / 마 14:13~21

미정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김나경 박석희 이국노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최미자 김필순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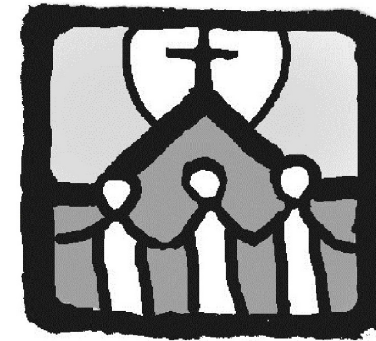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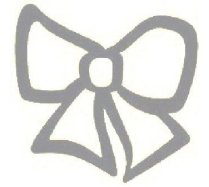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더위와 태풍 사이에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몸이 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한시도 쉬지 못하고 노지에서 일해야 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을 잘 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자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밤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가자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자 시민들의 죽음을 즐거움 속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어 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생명의 아버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곽상준	최경미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순자	김영아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일랑	이은옥	김재홍	최희영	김정진	김혜정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곽혜자	김현동	오유경	김흥기	류준모	심호선
문홍일	이미혜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상욱	박영희	박인혁	방문성
박혜경	배삼순	백성래	신진식	변혜정	안세진	안정숙	양상철	박재란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건우	이계숙	이광석
이경희	이동천	이재문	이정은	임서영	임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장동훈	정은선	장영숙	전인섭	정연희	정영우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정우선	정원석	김현영	정한구	왕영순	정현숙	조경자	조병주	주경진
이윤정	최종원	추현영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허준호	홍복선	홍소형	홍소형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숙	김금순	김성공	전혜민	김세진	김재홍
최희영	김중수	이순정	김진중	김태정	신진식	변혜정
박아영	주명재	한성자	홍성식	이유리	환경부	무명6
						전인섭
						조헌권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김향자	김현동	오유경	김흥기	박석희
조항미	박호규	강영님	무명6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심	심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말과 별

- 신경림

나는 어려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별이 되는 꿈을 꾸는 일이 있다.
들판에서 교실에서 장터거리에서
별떼처럼 잉잉대는 우리들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는 꿈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같은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어릴 때의 그 꿈이 얼마나 허황했던가고.
아무렇게나 배알는 저 지도자들의 말들이
쓰레기같은 말들이 휴지조각같은 말들이
욕심과 거짓으로 얼룩진 말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별들이 되겠는가.
하지만 다시 생각한다.
역시 그 꿈은 옳았다고.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망설이고 겁먹고 비틀대면서 내놓는 말들이
어찌 아름다운 별들이 안되겠는가.
아무래도 오늘밤에는 꿈을 꿀 것 같다.
내 귀에 가슴에 마음속에
아름다운 별이 된
차고 단단한 말들만을 가득
주워담는 꿈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공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화려한 잔치를 지향하느라 나의 소유를 여뒀두고, 주님의 소박한 식탁에 참여하길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공홀하심에 기대어 충만한 회복을 누리고, 그 공홀을 나누어 주님이 일구시는 오병이어 잔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남, 1:2여성교회 주관 예배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의 밤 인도 :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익 장로	류정욱 선생 이현순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조문규 황현성 임영선 진정숙 이오복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2)

- 고흐의 편지 중 일부 발췌 -

1883년 3월 11일

종종 나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만의 일을 찾았기 때문이야(어쩌면 지금 이 순간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내 마음과 영혼을 바칠 수 있고 삶에 의미와 영감을 주는 그런 일 말이다.

물론 기분은 때에 따라 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예술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어. 예술이란 인간을 항구로 실어가는 강력한 조류 같은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야. 물론 인간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말이야. 어쨌거나 사람이 자신의 일을 찾는다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나 역시 불행한 인간은 아니지. 그러니 내가 어떤 큰 시련에 처하거나 삶에 어두운 나날이 닥친다 해도 불행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싶지는 않단다. 실제로 난 그런 불행한 사람도 아니니까.

1883년 8월 4일-8일

분명한 사실은, 내가 몸을 아끼지 않으리라는 것, 다양한 감정과 난관을 지나치게 피해 가지는 않으리라는 거야. 더 오래 사느냐 마느냐는 내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게다가 난 의사들처럼 나 자신의 신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난 무지한 채로 살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안단다. 수년 내로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거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하게, 가능한 한 세밀한 규칙을 세워 열정적으로, 또 최대한 핵심을 파악하며 일에 임해야 할 거야. 세상에 대해서는 오로지 내가 알아야 할 빛과 의무만을 생각한단다.

1883년 10월 28일

틀에 박힌 행동과 상투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 믿는다면 그는 정말이지 잘난 체하는 우스꽝스런 사람일 거야. 세상만사에는 늘 무언

가 아주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있으니 말이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우리를 넘어서는 무한한 것,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무언가가 있음을.

자신이 작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사람, 자기가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만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주입받은 어떤 개념들, 즉 체면을 차린다거나 일정한 행동 방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를 포기한다면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걸까? 나 자신의 경우,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잃게 되건 말건, 별 관심이 없단다. 이런 형식이나 개념들은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흔히 치명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그저 경험으로 알고 있을 따름이야. 결국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렀지. 우리의 삶이 그토록 큰 신비임에 비해 '예의범절'의 체계는 지나치게 편협한 것이 분명해. 나로 말하면 이 체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단다.

1885년 4월 30일

작은 등불 아래서 접시에 담긴 감자를 손으로 먹는 이 사람들을 그리며 나는 그들이 마치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단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정직하게 번 것임을 말하고 싶었지. ... 그저 예쁘게 그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투박함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해.

내 눈엔 시골 처녀가 세련된 숙녀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 시골 처녀가 입은 헝겊을 댄 흙 묻은 푸른 옷과 치마는 햇빛과 비바람에 시달리며 색이 바래 더없이 섬세한 뉘앙스를 띠게 되지. 그런 시골 처녀가 숙녀의 옷차림을 하게 되면 그녀 안의 진정한 무언가가 상실된단다. 농부는 밭에서 일하는 면옷 차림일 때가 주일날 정장을 하고 교회에 갈 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져.

그러므로 농촌화를 관습적으로 매끄럽게 그리는 건 잘못이라 생각해. 농촌화에서는 베이컨과 연기, 썬 감자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야.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외양간에서는 거름 냄새가 나야 해. 그건 외양간이니까. 또 밭에서 익은 밀이나 감자 냄새, 혹은 비료나 퇴비 냄새가 난다면 그것 역시 제대로 된 거야.

- 빈센트 반 고흐 (H. 안나 수 역음)